

## 업계 단신



### 올텍

#### AAAP서 심포지엄 개최



올텍은 오는 9월 21일 부산 벡스코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AAAP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 30개국에서 약 13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AAAP에서 올텍은 전 세계 축산 및 사료 시장의 동향 및 이슈, 그리고 천연의 해결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Delivering on the Nutrigenomics Promise' 라는 주제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총 4명의 교수 및 박사들이 강연을 할 예정이다.

특히 요즘의 핫 이슈인 광물질, 마이코톡신, 셀레늄 그리고 번식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학적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나눌 계획이다.

Tel 02-598-1311

### 우성사료

#### 축우 PM 손근남 이사 박사학위 취득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 축우 PM 손근남 이사는 최근 'non-ionic surfactant' 급여가 젖소의 반추위 발효특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주제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손 이사는 이번에 발표한 논문에서 "반추동물은 섭취한 총 에너지의 10~30%만을 정미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는 사료내 섬유소의 50~70% 정도가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존연구 결과에 의하면 반추위 내에 존재하는 가수분해효소의 대부분(약 75%)은 미생물에 부착돼 있거나 미생물 세포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료의 분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손 이사는 "non-ionic surfactant(NIS/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acrylic acid polymers(AAP)

의 혼합제제를 사용하면 세포내 효소와 세포벽 부착 효소를 밖으로 분비시키는 효과가 매우 높아서 벗집의 in vitro소화율을 30~4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NIS의 급여는 섬유소 소화율 증진으로 분 배설량 감소를 가져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청미바이오(주)**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연구소 인증**



바이오 벤처기업 청미바이오(주)(대표이사 이영규)는 최성현 연구소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오던 기술연구소 인증을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받았다.

지난 6월23일 인증 받은 청미바이오(주) 기술연구소 (CMBIO R&D Center)는 유용미생물의 개발과 분리 동정, 특허출원, 미생물을 이용한 약취제거용 제품 개발, 효소제 개발, 친환경 농법에 필요한 미생물 농약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제품의 성능 향상과,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유명 연구소,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기술개발로 실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현재

유용미생물 2종을 분리 동정해 특허출원중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용 제품도 연구 개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 보존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Tel 031-674-8130 www.cmbio.co.kr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서울사료(주), (주)도드람B&F**

**전사적 품질캠페인과 고객감사초청의날 (Thank You Day) 행사 개최**



(주)이지바이오시스템 · 서울사료(주) · (주)도드람B&F 3사가 공동으로

국내 축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품질을 회사의 정책으로 삼아 고품질 사료 생산·공급을 위한 '전사적 품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사적 품질캠페인은 이들 3사가 보유한 인천, 천안, 김제, 정읍, 음성, 입장, 직산 등 총 7개 공장에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전사적 품질캠페인은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사료관리법 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3사를 비롯한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까지 이번 캠페인에 함께 참여토록 해 고품질 사료생산 공급을 실현한다.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을 비롯한 3사는 품질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고객감사 초청의 날(Thank you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료 공급사와 물류회사 등의 협력사

## 업계 단신

와 함께 전사적 품질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통해사료의 질을 향상하고, 국내 축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들 3사는 품질캠페인에 앞서 지난해 6월1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축산과학연구소와 중앙분석센터를 최신 설비로 보강해 확장 준공한 바 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박사, 석사 등 고급인력을 대거 영입해 선진축산국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도드람B&F 음성, 정읍공장 및 서울사료(주) 인천, 김제공장이 이미 농림부로부터 HACC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료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주)이지바이오시스템도 HACCP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이지바이오시스템 관계자는 “격변하는 21세기 축산업은 WTO 및 FTA 협정과 함께 가축질병,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국내 축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속에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축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신한바이오캠

#### 2006 하반기 전진대회



(주)신한바이오캠(대표이사·회장 구본현)은 지난 4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평창 소재 피닉스파크에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목표달성 의지를 다지는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고객의 요구(Needs)를 신속히 파악하며 고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존 2개의 고객지원본부로 구성됐던 영업조직을 3개의 고객지원팀으로 편성한 후 개최된 이번 대회 기간 중 각 팀의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진행됐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고객지원 1팀은 신홍식 차장, 고객지원2팀은 정형찬 차장, 고객지원 3팀은 김달년 차장이 각각 팀장으로 임명됐다.

이와함께 하반기 고객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정현, 전규운, 김규섭씨를 신규 채용하고 7월 중순부터 3개월간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주)마광

#### 2006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선정

(주)마광(대표이사 신영근)은 지난 7일 중소 기업청 주관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인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실을 설치, 운영을 통해 애로 기술의 해소 및 신기술·신제품의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준비단계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받게 됐다.

(주)마광은 주관기관인 건국대학교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또한 상호간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축산업의 기반 구축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동부한농**

**바이오사업부 사무실 이전**

‘동부 파워킬’을 비롯해 동물약품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부한농은 사세확장을 위해 ‘동물약품사업부’를 ‘바이오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18일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33 7블럭 32롯데
- 전화번호 : 031) 362-2209/2214
- 팩스번호 : 031) 495-5689

**CJ Feed**

**하절기 사양관리 세미나 개최**

CJ Feed는 하절기를 맞아 최근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소재 산정호수내 한화리조트에서 낙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양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은정식 CJ Feed 중앙연구소 박사는 “하절기 젖소 체온이 하루 한번 정도는 정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박사는 “젖소가 고온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온도가 교과서에는 25℃로 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1℃부터 체온관리가 요구된다”며 “외형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21℃부터 젖소의 평균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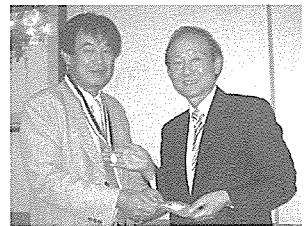
또 “고온스트레스 피해는 2~3개월후 가을철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고온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소는 1년중 3분의 2이상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된다”며 “사육환경 개선과 영양 및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고온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냉각팬을 사용할 경우 냉각기 개념보다는 공기순환 개념으로 설치하고 낮시간 보다 저녁시간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단사회**

**7월, 하나로 교역(주) 김종욱 대표이사 우승**

우리협회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단사회의 7월 대회에서 김종욱 하나로 교역(주) 대표



이사가 우승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메달: 최 정 (주)우산산업 대표이사
- 롱게스트(장타상): 이원익 (주)YWM 대표이사
- 니어리스트(근접상): 서성호 아미바이오 테크놀러지 대표

\*귀사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문의 : 02)585-2223~4 팩스 : 02)588-8297  
kfeedia@hanmail.net